

‘특별한 만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일본에서의 소식

전철 안에서의 특별한 만남



▲ 비와코



▲ 일본의 전철

이준호 선교사는 잠시 일본에 머무는 동안 몇몇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안식년 기간 일본을 더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카코가와 근처 비와코(びわ湖)라는 곳으로 가던 전철 안,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청년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공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제가 한국인임을 밝혔습니다. 청년은 제 말을 듣자마자, 책을 덮고 ‘한국인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면서 저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토모’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카코가와 옆의 히메지 시에 거주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처럼 말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 한국관련 업무도 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한국어 교실을 찾기 쉽지 않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토모상에게 한국에서 온 선교사임을 밝히며,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모상은 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즉석에서 SNS친구를 맺었습니다. 일본에서 누군가와 단시간에 SNS친구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만남입니다!

안식년 후, 한국어 교실을 통해 토모상과 연결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K상과의 만남

선교보고를 드렸던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지인인 일본인 언니가 카코가와 근처에 사는 것 같으니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본인이 바로 ‘K상’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K상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으니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K상과 그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K상의 딸이 학교에 가는 날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입학시험까지 치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입학면접에서 면접관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딸이 학교에 가고 입학시험까지 치렀다는 것은 K상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후, K상은 제가 일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카코가와 교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K상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이후 K상을 소개해준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었을 때, 눈물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이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입니다!

K상과 그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소식



지난 1월 5일, 너무도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2017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든 선교사님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함께 훈련 받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만나는 것만으로도 재충전이 되는 동기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지난 1월 12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로부터 재계약을 승인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선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재계약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재계약이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선교사는 안식년동안 새로운 임기를 위해 해외선교위원회로부터 재계약을 승인 받는 절차를 가집니다. 선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간의 사역 계획에 대해 점검 받으며, 다시 한 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기 선교사의 경우 교단 헌법 52조 1항에 의거해 4년 현지 사역 후 1년의 안식년을 의무로 합니다)

가족소식



황명아 선교사는 민하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혼자 1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그림하우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민하도 처음으로 아빠와 단 둘이 하룻밤을 보냈지만,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며, 아빠와 잘 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딱 한 번 엄마를 찾았지만, 이내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빠가 싸준 도시락도 잘 먹고 유치원에서 잘 지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민하가 한층 더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 연휴에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 수확 체험도 했습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민하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스스로 딸기를 따겠다고 하면서, 한 팩을 다 스스로 채웠습니다. 또한 설날에는 멋지게 세배도 했습니다. 설 전에, '나는 세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엉터리 절(?)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잘 연습하여서, 설날에는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멋지게 세배를 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서도 민하에게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문화를 잘 가르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세워 가며, 일본 문화와 언어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문화 깊이 알아보기 - '모치즈키(餅つき)'

연말연시, 일본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구를 이용해 떡을 만들어 먹는 모치즈키(餅つき) 행사입니다. 과거 일본은 '벼농사 신앙'이라고 해서, 벼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스레 벼에서 나오는 쌀은 사람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신성한 음식이며, 쌀을 찧어서 굳히는 떡이나, 쌀로 빚은 술은 힘이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절구를 이용해 쌀을 찧어 떡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절구를 찧고, 누군가는 절구를 찧기 좋도록 떡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완성된 떡을 작은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모치즈키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고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에서도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또 함께 새해의 기쁨을 나누고자 1월이 되면 모치즈키 파티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 조니(일본의 떡국)

카코가와와 성도들도 지난 1월 15일 모치즈키 파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만들어진 떡을 각자의 집에 가지고 가서, 각자의 집안 전통에 따라 그 음식을 먹고 그 사진을 나누었습니다. 모치즈키를 통해 만든 떡은 구운 뒤 간장이나 콩고물을 발라 먹거나 김에 싸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라면에 떡을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모치즈키를 통해 만든 떡을 가지고 조니(雑煮)라는 떡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닭이나 가쓰오부시로 만든 국물에 떡을 넣어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백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으로 조니를 만들거나 팔국물로 만드는 등 지역적인 특색도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1. 안식년 기간동안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2. 새로운 2기 사역(2023-2027년)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실행되도록
3. 새로운 후원교회를 개발하고,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4. 출국준비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3월 2일 김포공항에서 출국)
5. 2023년 2월의 사역을 예비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 후원안내

- 한국 연락처 :
이준호 010-2527-2604
황명아 010-7621-1855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